

# ‘공손성 이론과 언어 교육’에 대한 토론문

송현주(경북대)

이 연구는 한국어 공손성 현상의 개별적인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공손성 이론의 기반이 되는 ‘체면’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어의 공손성 유형을 구분한 후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Brown and Levinson(1978, 1987)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제가 토론을 맡아, 토론자로서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예문 (5)에서 “나 이 사람 남편입니다.”에서 ‘남편’ 대신에 ‘친구, 선생, 동료’라도 무방하며,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대화가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드라마 등에서 (5)와 같은 예문을 많이 접한 바 있으므로 연구자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등장’에 의해 일종의 ‘체면이 사는’ 상황으로 설명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때에는 가족이 아닌 누구라도 폭력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닌 다른 단어로 대체되어도 ‘체면이 사는’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5)의 예가 체면과 관련한 ‘가족 중심주의’의 예로 적절한지 여부를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7)-(9)를 제시하시면서, “일상 대화에서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명하고, 친근감과 유대감을 표시함으로써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안부 질문은 서구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가족의 개인사를 묻는 일이므로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시해 주신 대화에서 대화 당사자들은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듯합니다.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아는 사이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대화는 (적어도 제게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물어 친근감이나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대화 당사자 간의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3. (18나) “암마! 이 새끼 오랜만이네! 살아 있었구나!”가 ‘적극적 공손 전략 표현’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젊은 남성 사이에서 “암마! 이 새끼” 등의 비속어나 별명, 욕설, 농담 등을 사용하여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라고 기술하셨는데, 이 예문이 적극적 공손 전략인 까닭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받아들여 주고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바람(적극적 체면)’에 부응했기 때문으로 보신 건가요?

4. ‘공손성 이론의 언어 교육에의 적용을 위하여’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에 여러모로 동의하는 바이며, 앞으로 이 연구의 결론에서 제시해 주신 내용이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해 주신 내용 중에 “공손성은 화용적인 현상이므로 고정된 표현에 의해 공손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에 대해 매우 동의합니다. 이에,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런 점을 고려한 교육에서 교육 내용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면 좋을지, 교수학습 시 유의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제 노래 잘하더라. 정말 대단해.

학생 A : 예, 다음에도 시켜만 주세요, 멋지게 해내겠습니다.

학생 B : 아니에요. 여러모로 부족한 공연이었어요. 더 노력할게요.

가령 위의 예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학생 모두 공손성을 지켜서 발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논문에서 (14)와 (15)를 통해 “칭찬 화행의 응답 발화에서 선행 발화 내용을 거부하거나 축소하여 ‘결양’을 표현함으로써 공손성을 유지하는 예”를 설명해 주신 바를 고려해 본다면 학생 B만이 공손성을 지킨 발화로 설명될 듯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에서 말씀하신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맥락에 따라 다양한 표현들이 선택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학생 모두 공손성을 지킨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